

정책논단

# 제주지역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제주지역의 경우 1차산업과 관광위주의 3차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2차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제주에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서비스업 관련 기업유치와 인재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 1. 문제제기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선별적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 양성, 지역의 기업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산업입지 공급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부 추진된 바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산업 혁신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혁신역량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따라 뷰티향장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혁신인프라로서 제주TP가 구축되고, 향장제품 및 식음료 개발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2005)의 4+1핵심

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의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장기간 지역산업정책이 구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1차산업과 3차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도민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 양성 및 지역의 기업유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구조 재편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영수(2011) 등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광역경제권 정책의 위상과 역할, 산업 타기팅(targeting) 방식의 지속여부, 지역산업 육성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 등 세 가지 이슈가 제기되었다. 즉 지금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들은 최근의 산업발전 트렌드나 지원산업의 효율화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제기와 견주어서, 제주지역 산업정책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제주에 최우선 적합 산업이 타기팅 산업으로 선정되고 있는가? 둘째,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산업단지 입지정책이 제대로 병행되고 있는가? 셋째는 산업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로서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대로 수반되고 있는가?이다.

본고는 이러한 세 가지 전략적 이슈를 점검하고, 제주 산업구조의 특수여건을 감안한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 II. 제주지역 경제규모 및 산업

제주지역의 경제규모는 2010년 말 기준, 10조 3175억원 규모로 전국 비중의 1%이하에 머물러 있고, 도민 1인당 총생산액은 1,886만5천원으로 전국평균의 78.5% 수준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표 1〉 제주지역내총생산 추이(2005년 대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천원)	18,059	18,902	20,287	21,160	21,861	24,045
제주(천원)	14,706.8	14,900.0	16,042.9	16,193.5	17,661.7	18,865.4
상대수준	81.4	78.8	79.1	76.5	80.8	78.5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 2012

호남지방통계청(2012)의 ‘2005년 이후 지역내총생산 추이’에 따르면 제주의 실질 GRDP는 2005년 7조 9661억여 원에서 5년간 29.5% 증가했으나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 35.2%를 밑도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서 GRDP 성장률은 5년간 연평균 2.7% 성장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저소득, 저성장상태로 분류된다.

〈표 2〉 2005년 이후 전국대비 제주지역 1인당 GRDP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천원)	18,059	18,902	20,287	21,160	21,861	24,045
제주(천원)	14,706.80	14,900.00	16,042.90	16,193.50	17,661.70	18,865.40
상대수준	81.4	78.8	79.1	76.5	80.8	78.5

자료: 호남지방통계청, 2012

제주지역 산업은 1차·3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전국경제 비중에서 1% 미만의 취약한 내수기반,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축매산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70년대까지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발달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80년~90년대 들어 제조업 육성<sup>1)</sup>과 다양한 산업구조로의 개편<sup>1)</sup>이 제자리를 머물면서 지역경제가 저성장 저소득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sup>2)</sup>.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총생산액 중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에 4.7%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농림어업이 줄어든 폭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차산업 연계 제조업을 집중 육성되었다면 제주경제 사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1)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에너지·환경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 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은 물론 의료관광·MICE 등 융복합관광이 가능하며, 2차 광역선도사업에 휴양형 MICE가 포함되어 있다. 종합병원을 이용한 의료관광산업,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산업,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산업, 그리고 방송·통신·콘텐츠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2) 강기춘(2005)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1.07%를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동성의 상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제주지역 산업별 비중 추이(단위: %)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림어업	32.5	22.3	18.7	16.5	16.4	17.6	19	17.7
제조업	4.7	3.8	3.1	2.8	3.2	3	3.8	4.2
건설업	13.9	12.9	10	9.5	9.3	8	8.1	8.2
서비스업	48.9	61	68.2	71.2	71.1	71.4	69.1	68.3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지역의 관광산업과 감귤위주의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문제는 고질적인 난제를 갖게 되는데, 농수산물의 경우 가격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소득변동 위험에 노출되고,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 피해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관광산업의 경우도 주변 국가나 국내 경기변동에 민감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적용돼온 지역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타기팅 산업 선정 등 세부적인 이슈들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III. 제주지역 산업정책의 전략적 이슈 검토

#### 1. 제주에 최우선 적합 산업 선정 및 실효적 지원

##### 가. 산업 타기팅(targeting) 전략의 문제

어떤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할 것인가의 산업 타기팅 문제로서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서 산업 타기팅의 추진경위를 보면, 1999년 4개 시도 1시도 1산업 지원 방식, 2002년 9개지역 시도별 2~3개 전략산업 선정 방식, 2004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 선정 방식, 2007년에는 특화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수립, 2009년에는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씩의 선도산업 추가 선정, 2012년 2단계 전략산업 및 프로젝트 선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타기팅산업 육

성이 현재대로 국가·지역협력 방식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자율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도-전략-특화 산업지정을 통한 산업부문에서 타기팅 전략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공간적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클러스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산업정책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산업들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주에 최우선 적합 산업 선정은 성공가능성이나 기대효과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안되어 왔던 산업으로는 건강뷰티산업, 식품가공산업, 물산업, 의료관광산업, 교육산업, 해양레저산업 등으로 압축된다.

#### 나. 지역실정에 맞는 선별적 지원사업 및 평가

이들 타기팅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정책에 따라 지원내용이나 평가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다보니 그 지역의 산업 및 기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내용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기업들은 지리적인 여건상, 해상물류비가 추가로 들어 과다한 물류비와 유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비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영세한 규모의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활성화<sup>3)</sup>가 더욱 절실한데,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기업이 정신 함양 교육 강화, 창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확대, 창업이후 보육센터 졸업까지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산업의 투자효율성, 예산배분의 적절성, 사업간 연계성, 사업의 성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제주지역에 기업을 시급히 육성하려면 창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여기서 창업생태계란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산업단지 활성화

### 가.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전세계적으로 산업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산업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에서도 특화산업, 전략산업, 선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다보니, 이들 산업들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혼선을 빚기도 한다.

지역경쟁력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으로 정의되며(Storper, 2005), Porter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지역경쟁력은 지역생산성이라고 하였다. 지역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지역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해당지역에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경우 지역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이 가치사슬 단계별로 입지해 있고, 이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에 시장수요까지 풍부하다면 이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은 단기간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지역산업육성정책으로 구사된 전략산업기획단 구성, 국고보조금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다방면의 큰 폭의 지원범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 나. 산업단지 활성화 인식 제고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면에서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을 부흥시킨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수 120,115개 중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체수는 40.6%에 달하고, 산업단지의 기여도를 보면, 전산업 총산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32.0%, 제조업 총산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67.7%, 국내 수출 기여도는 77.0%에 달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단지는 국가지정 1개소, 지방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3개소가 전부인 실정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왜 낮은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정책목표와 주요 산업단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목표	· 수출위주의 경공업입지	· 수도권역제 ·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내실화 · 농공단지 개발	· 입지유형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 · 구조조정 촉진	· 전문화된 집적 지구 · 지식기반경제 구축지원
주력 산업	· 섬유· 신발 · 전자제품	· 석유화학 · 철강, 선박 · 자동차, 기계	· 반도체 · 전자공업 · 자동차	· S/W산업 · 반도체, 정밀화학 · 메카트로닉스 등	· 정보통신산업 · 게임산업 · 바이오산업

〈표 5〉 전국 및 제주지역 산업단지 현황

(2010년 3월말)

구 분	전국 단지 수	전 국	제 주
국가	40	강원 3개, 전북 7개, 전남11개, 충북 4개	1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099,000m <sup>2</sup> )
지방 일반산업단지	374	강원18개, 전북 17개, 전남28개, 충북 46개	1개(용암해수단지, 195,000m <sup>2</sup> )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부산 춘천 청주 전주 마산	
농공	401	강원 36개, 전북 46개, 전남 48개, 충북 43개	3개(대정, 구좌, 금능)

지금까지 산업단지하면 공장을 연상하게 되는 요인도 있으나, 이제부터는 산업단지가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자, 국가나 지방의 산업정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 인프라라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수출확대정책이 제대로 구사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수출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산업단지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식품 등 향토자원산업 등 2차 제조업의 비중을 5%, 10%로 높이는 등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려면, 포화상태에 도달한 산업단지 부족 현상을 탈피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들은 기존 생산 위주에서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진 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유통기능까지 겸비한 복합적 혁신공간으로 산업입지 수급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산업입지정책은 인적자원, 지식역량, 혁신환경 등의 새로운 입지결정 요인들이 조화가 되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산업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로서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가. 실천적 기업유치 전략 필수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기팅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이 지역에 존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기팅 산업과 연관된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화룡점정으로 타기팅 산업과 관련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포함되어 지자체에서도 활발한 유치노력이 필요로 한다. 제주지역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유치 개념 속에 기업유치도 포함되는 개념을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유치활동기간 설정, 유치대상 기업물색, 기업접촉 및 유치활동, 기업지원방안 등 과정별로 매뉴얼을 수립하여 결과적으로 제주에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설명회 등 행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일이지만, 제주지역 산업정책과 연계된 산업에 속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타기팅하여 국내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상장 기업들의 내부를 파악하고, 제주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 뒤 이들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나. 지역향토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향토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지역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하고, 지역 기업들이 판로개척의 한계, 자금조달의 어려움, 물류 및 유통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지역향토기업들이 지속성장을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지역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기업사랑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 IV. 지역산업정책 개선 방향

제주지역의 경우 1차산업과 관광위주의 3차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2차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제주에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인재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주지역 산업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 1. 타기팅 산업 선정 신중

타기팅 산업 선정 시 가장 핵심은 지역의 현실과 지역주민의 의지도 중요한 만큼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음료, 뷰티향장 등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적 자원을 감안한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에너지·환경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 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다. 정부는 2009년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sup>4)</sup>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들을 발표하였다.

4) 고부가서비스산업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이 포함되었다.

2012년에는 서비스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관광, 스포츠, 교육, 사업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사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은 물론 의료관광, MICE 등 융복합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2 광역선도사업에 휴양형 MICE가 포함되어 있다. 차제에 종합병원을 이용한 의료관광 육성 전략 마련을 적극 검토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사업도 성공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송·통신 콘텐츠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과 더불어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

타기팅 산업이 선정되고, 세부적인 지원사업들이 추진되는데, 국비지원이라는 제약 때문에 지원내용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다보면 열악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업비의 분산 집행으로 기술개발역량 등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경우가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제주지역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기술이전과 식품사업 지원책, 마케팅까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비와 지방비를 접목한 씨드머니(seed money)를 통해 조직과 예산을 가진 컨트롤 타워 센터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내 산업기술 전반을 커버하는 제주TP 역량으로는 기술개발 이전이 불가능하며, 식품관련 대기업에서 종사했던 전문인력이나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제주식품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핫카이드 현립 식품가공연구센터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가공식품의 명품화, 수출시장 개척, 공동마케팅 공동수배송, 공동판매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 3. 산업단지 확충 필요

현재 제주도가 신설하려는 국가지정 녹색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지역 산업단지 현실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조속한 산업단지 확충 시에는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되고 있는 변화에 맞춰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입지 통합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 대규모 단지개발에서 지방정부 또는 민간 주도 중

소규모 산업단지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기업 및 중소기업 전용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전문화, 특성화 단지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중심형 산업입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존산업단지의 재정비, 효율적인 구조고도화도 필요하다.

#### 4. 기업유치의 내실화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투자유치부서장을 개방형으로 뽑아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하여 가진 실무형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서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본부에 투자유치과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정부서의 투자유치 업무에서 벗어나, 국 단위별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세일즈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 기업유치 후에는 기업과 사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JDI**

#### 참고문헌

- 김영수(2011), 지역산업정책의 주요이슈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 김정홍 외(2011), 지역 경쟁력의 원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윤우진(2012), 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 이원빈(2011), 지역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제주TP(200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 차미숙(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